

빛고을 연극열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광주연극제 3월4일~10일 문예회관 극단 진달래피네 등 4개 극단 출품 최우수상 6월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33회 광주연극제가 오는 3월4~10일 열린다. 극단 유피씨어터 '명예로울지 몰라-퇴직' 연습 모습.

지역 극단들이 쟁쟁한 작품으로 경연을 벌이는 33회 광주연극제가 오는 3월4일부터 10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가 주최하는 이번 경연에는 '극단 진달래피네', '시민', '유피씨어터', '얼·아리' 등 4개 극단이 출품한다. 이들 경연작 중 최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대표로 참가한다.

먼저 경연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은 극단 진달래피네의 '연극학개론'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전공의 시선으로 본 세상을 다뤘다. '군신유의, 부부유별, 부자유친, 장유유서, 봉우유신' 등 오륜을 전공의 세상에 접목시켰다. 작품 곳곳에 풍자와 비판을 녹여 희곡을 통해 사회 부조리를 고발했다. 극단 단원들이 공동으로 극본을 썼고 최영화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가 연출했다. 3월 4일 오후 7시 30분.

극단 시민은 목표의 한 섬마을을 배경으로 한 '내 안에 품음'을 들고 관객을 찾는다. 조만갑은 오랜만에 딸과 함께 옛 고향 상태를 찾는다. 친척이나 알고 지내던 사람도 다 떠나 버린 고향 상태에서 조만갑은 옛 목표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다. 폐교가 된 옛 초등학교를 우연히 방문한 조만갑은 무성한 잡초와 부서진 유리창을 보며 음산한 기운에 씩씩한 생각마저 든다. 딸 조수현은 바람소리조차 무서워 폐교를 벗어나려하지만 조만갑은 옛 기억을 떠올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김장일 작가가 극작을 맡고 지난해 광주국제평화연극제에서 러시아 극



단과 합작한 '잊어라'를 선보인 김민호 동신대 교수가 연출했다. 3월6일 오후 7시 30분. 극단 유피씨어터는 파박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한 '명예로울지 몰라-퇴직'을 선보인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할 처지인 세 남자는 신봉과 처지가 달라 퇴직을 대하는 태도도 각기 다르다. 이들은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터놓으며 입장을

정리해간다. 신랄하고 솔직한 남자들의 수다를 통해 현대인의 잃어버린 인간미를 찾는다. 김연민 작가가 극본을 쓰고 이성호 감독이 연출했다. 3월8일 오후 7시 30분.

5년 전 '발톱을 깎아도'로 32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극단 얼·아리는 '그래도, 따뜻했던'으로 2014년 영광 재현에 도전한다.

치매를 앓으며 요양원에서 지내는 영순은 자신을 찾아온 둘째 아들 용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느닷없이 주위 할머니들에게 호통을 친다. 어느 날 용주가 다시 영순을 찾아오자 그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떠올린다. 생활고로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던 영순은 괴로워하며 울먹인다. 영순의 딸 해란은 이혼한 뒤 생활전선으로 뛰어들며 어머니에게 문안을 자주 오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김경숙 작가가 각본을 맡고 '그녀는 죽는다', '남치', '해와 달' 등의 극본을 쓴 양태훈씨가 연출가로 참여했다. 3월10일 오후 7시. 전석 2만원(청소년 1만원). 문의 062-523-729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서 발행 '문학들'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선정

문화예술위, 지역문예지 부문 유일

2019년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에 광주에서 발행되는 종합 문예지 '문학들'이 선정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심의 결과에 따르면 '문학들'은 지역문예지 부문에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중앙 문단에서도 주목받는 문예지로서의 위상을 드러냈다.

올해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은 기존 문예지, 신규 문예지, 문학단체간지, 지역문예지로 구분돼 진행됐으며 47개 문예지에 7억4000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특히 지역 문예지 부문은 지난해 문학주간에 열렸던 문예지 세미나에서 지역 문화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추가됐다.

'문학들'은 지난 2005년 광주전남에 종합문예지가 필요하다는 지역 문인들의 여망에 따라 창간됐

다. 제호가 맡아주듯 삶과 문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편집 방향을 지향하는 것은 물론 잠재된 지역문단을 활성화하는데 매진해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문학단체간지 부문에는 PEN문학(국제펜클럽한국본부), 월간문학(한국문인협회), 월간 한국소설(한국소설가협회), 한국수필(한국수필가협회), 아동문예(한국아동문예작가회), 에세이문학(한국수필문학진흥회) 등 7개 기관지가 선정됐다.

기존 문예지 부문에는 문학동네, 실천문학, 문학의오늘, 문학사상, 시인수첩, 창작과비평, 현대시, 현대문학, 현대시학 등 35개 문예지가 포함됐다. 아울러 신규 문예지에는 계간 약스트, 리터 등 4개가 선정됐다.

이번에 지역문예지 부문에 선정된 송광릉 문학들 대표는 "그동안 '문학들'은 아카데미한 소문의 장을 통해 신예를 양성하고 기성문인들에게는 작품 발표의 장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담론 전개로 새로운 문학적 지형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광주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민예총 신임 회장 박종화씨 추대



광주민예총(이하 광주 민예총) 신임 회장에 박종화(사진) 오월음악이사가 선임됐다. 광주 민예총은 지난 23일 민들레 소극장(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개최한 2019정기총회에서 박종화 오월음악 이사를 13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 28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박 신임회장은 "부담스러운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주 민예총이 조지다운 체계를 갖춰 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쟁의 한길로' 작곡가로 알려진 박 회장은 지난해 작곡대회 30주년을 맞아 기념앨범 '사색 30'을 출시했으며, 시집 '바쳐야 한다' 등 모두 3

권의 시집을 발표했다. 한편 민예총은 최근 '5·18방안 문화예술인단체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예총은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이들의 자유로운(?) 망동을 지지하고 있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제명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인협회 시분과 대표시선집' 발간

회원 대표시 등 277편 수록

광주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이태웅) 회원들의 작품을 모은 '광주문협 시분과 대표시선집'(한림)이 발간됐다. 이번 작품집에는 회원 134명의 대표시 268편과 역대회장 9명의 시를 포함한 277편의 창작시가 수록돼 있다.

특히 송선영·손광은·오영규·전원범·김종·박형철·노창수·강만·임원식 역대 문협 회장을 비롯해 젊은 시인들의 작품까지 두루 아우르고 있어 회원들의 개성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광주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경호·강준기·



전석홍 기성시인들의 다양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태웅 광주문협 시분과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좋은 시가 필요할 때"라며 "영혼의 맑고 아름다운 샘물을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불멸의 시정신 발현으로 시인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28일 '2019 공모사업 설명회'

현장형 성평등정책 발굴 등 4개 분야

광주여성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재단 8층 강당에서 '2019년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재단 내 다양한 공모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산편성, 집행방식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공모사업 대상은 ▲현장형 성평등정책사업 발굴 ▲여성소모임 활성화사업 ▲여성전사관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 ▲북카페 작은전시 및 제

험프로그램 등 총 4개 분야다.

'현장형 성평등정책사업 발굴'은 ▲오월여성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젠더 프리-성역할 고정관념 깨기 ▲광주형 성평등생활문화콘텐츠 개발 등 3개 주제를 내걸고 4500만원 상당의 공모를 추진하게 된다.

설명회 참여는 일반시민을 비롯해 광주지역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여성일자리 기관, 문화예술사업 추진 관계자, 여성소모임 등 여성 관련 조직 및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053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산문화재단, 대산청소년문학상 공모

3월 4일~5월 31일까지

대산문화재단은 한국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산청소년문학상을 공모한다.

작품 공모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응모작품(시 5편·소설 원고지 60장 내외 1편)과 학교장추천서(비재학 청소년의 경우 소속단체장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약 80명의 수상 후보를 선발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문예 캠프와 백일장을 진행해 최종 수상자를

뽑는다.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총 22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지고, 선발된 작품은 '대산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집'으로 출간된다.

또한 대산 청소년문예 캠프에 참가한 학생이 등단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문예창작장학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안내는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daesan.or.kr>)에서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721-32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